넋은 별이 되고

향림중학교 1학년 박○우

우리는 모두 6.25 전쟁에 대하여 안다. 내 곁에서 걸어가는 모르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6.25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6.25 전쟁을 책을 보며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화로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나 책으로 배운 것들은 그 날의 참혹함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알려주지 못한다. 6.25 전쟁을 직접 겪으셨던 김달육 육군 소령은 영화에서의 전쟁은 애들 장난과도 같다고 말씀하셨다. 폭탄 한 번 터지면 시체가 산산조각 나며 남은 건 장기 몇 점을 제외하곤 아무 것도 없었다고 회상하셨다. 우린 그런 참혹한 장면에 대해 상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 난 호남 호국 기념관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을 봤지만 그 역사의 흔적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총탄도 아니었고, 낡은 투구도 아닌 평범한 편지였다.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한 이우근 학도병이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쓴 그의 마지막 편지였다.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적의 다리가 떨어져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총탄과 수류탄이 빗발치는 그 참혹한 전쟁의 한 장면을 어린 학도병의 눈높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피를 나눈 같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에, 총구를 내게 겨누는 저 적군들 또한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이 들었다고 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그 복잡하고도 괴로운 심정들이 짧은 편지로 내게 다가왔다. 편지를 모두 읽고 나자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며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피로 물들지 않은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그런 빈 말이 아니었다. 지금 창문 밖 평화로운 광경들 또한 우리 조상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잊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일병으로써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 다행히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셨지만 아마 이우근 학도병이 봤던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격하셨을 것이다. 차갑고도 단단한 수류탄의 파편이 할아버지의 등에 남긴 흐릿한 흉터처럼 6.25 전쟁은 우리의 삶 속에 흐릿하고도 명확하게 남아있다. 우리들은 6월 25일이 될 때마다 모두 호국전사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신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허나 그렇게 빌고 있는 사람들 중 진심으로 호국전사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속으론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이 날 두렵게 한다. 얼마 전 6.25 참전용사 중 한 분이 폐지를 주워가시며 하루를 연명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얻은 것이 폐지를 주워가며 연명하는 삶이라는 것이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그런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었다. 돌아가신 호국전사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살아계시는 호

국전사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진 않을까. 오늘 호남 호국 기념관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전쟁이 지금은 멈춰있다고 하여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과연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사색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기를, 호국전사들의 령이 별이 되어 빛나기를, 남은 생 한 없이 살고 가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호남 호국 기념관에 방문하여 이런 기분을 느끼고 가기를 바라며 마친다.

살아나는 불꽃

순천고등학교 1학년 이○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내는 중 한 포스터를 보았다.
“청소년 호국워크 챌린지” 포스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나서 나는 첼린지 참여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조금 알아봤는데 호남 호국기념관 개관과 6.25 전쟁 70주년 기념으로 진행하는 행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도 배울 기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기념관으로 출발하였다.
기념관 건물에 들어갔을 때 1층 로비에는 나의 마음을 두근두군 하게 만드는 호국보훈의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자마자 나는 앞으로 내가 관람하게 될 여러 전시품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1층에 있는 기획전시실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름의 시화전에 시가 걸려 있었다. 시화전의 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고 있으니 나 또한 시를 쓴 사람들의 마음에 녹아들어 더욱 몰입하며 관람할 수 있었다.
호남 호국기념관은 3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1. 6·25전쟁을 마주하다
2. 6·25전쟁 속 호남
3. 호국정신을 기억하다
나는 첫 번째 주제 6·25전쟁을 마주하다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호국 영웅의 편지가 나를 반겼다. 그 글에 적힌 내용을 보면 얼마나 결연한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하였는지, 자신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무언가 가슴 한편이 답답하였다. ‘호국 영웅들의 붙이지 못한 편지를 찾습니다.’ 나는 그 글이 담고 있는 전쟁에 슬픔이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답답한 마음을 간직한 체 관람을 이어 나갔다.
잠시 뒤 ‘인천상륙작전의 승리 빛 뒤에 숨겨진 작전들’이라는 것을 보았다. 사실 다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장사상륙작전에서 희생된 군인들, X-RAY 작전에 투입되어 인천상륙작전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자결을 한 군인들,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 진입하여 팔미도등대를 탈환하신 군인분들까지 나에게는 전부 생소한 것들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는 이러한 것들이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지식은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뒤 중공군이 6·25전쟁에 개입한 내용이 나왔다.
최근에 BTS에서 6·25전쟁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항미원조전쟁 논란이다. 사실 이 논란에 대하여 왜 이번 논란이 잘못된 것인지 못하였었는데 호남 호국기념관에 오게 되어 왜 항미원조전쟁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인조주의적인 작전' 인 '홍남철수작전'을 보게 되었다. 사실 홍남철수작전은 영화 '국제시장'을 통하여 살짝 보았었는데 호남 호국기념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영상을 보면서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의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실제 당사자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을 더욱 몰입하여 느낄 수 있었다.
 그다음 여러 당시 상황과 여러 고지전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고 나의 첫 번째 주제는 끝이 나게 되었다. 나는 첫 번째 주제가 끝나게 되었을 때 6·25전쟁에 대한 지식이 싸여 그 지식은 나의 마음에서 활활 타오를 가연물이 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6·25전쟁 속 호남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깨끗한 세 가지 새 모자가 나의 눈에 띄었다. 그 뒤 호남의 영웅들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사실 여기 소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웅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다들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들은 모두 영웅이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다.
 그 뒤 여러 호남의 전투를 나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주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주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영상이 나왔다. 학도병에 관련된 영상이었다.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혈서로 군대에 지원하고 자신의 목숨을 나라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솔직하게 나는 자신이 없다. 말로는 너도나도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너무나도 두려울 것이다. 진시황도 자기 죽음이 두려워 불로초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만큼 자기 죽음은 인간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린 나이에 지원한 학도병들의 의지를 글자와 말로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니까. 정말 나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렇게 여러 호남에서의 전투에 지나 끝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세 가지 모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처음 봤던 모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여러 전투의 희생으로 인해 외관이 낡고 더럽혀져 있는 모자가 되어있었다. 나는 이 모자에서 존경심이 느껴졌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 얼마나 멋있는 훈장이란 말인가?
 두 번째 주제를 끝마친 뒤 나의 마음속에 있던 존경심이라는 이름의 점화원과 지식이 만나 작은 불씨를 만들었다.

곧이어 나는 마지막 주제 호국정신을 기억하기에 들어갔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문장이다. 보자마자 마음이 갑자기 자랑스러움이 나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느낌이 좋긴 하지만 때때로는 너무 무섭다. 내가 자랑스러움에 잡아먹혀 오만한 사람이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스러움을 내가 조절하고 이용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내가 무언 가를 함에 있어 이보다 좋은 촉진제가 없다.
이 주제에는 여러 호남 출신 의병으로 시작하였다. 이들이 의병운동을 할 수 있었던 촉진제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이순신 장군님에 문장을 보고 자랑스러움을 느껴 촉진제가 되었다면 이들도 나와 비슷하게 촉진제가 되는 무언가가 그들을 도왔을 그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던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무엇이 됐든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그 영상에서 정말 내가 인상 깊게 들은 문장이 있다. “임진왜란에서부터 시작된 호남의 정신은 병자호란 일제강점을 지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나라를 지키려는 최선을 다한 노력을 보여준 의병과 독립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이다.”
이 문장을 보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
“호남정신을 이어오면서 있었던 임진왜란이나 민주화 운동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내 몸속에 있는 호남정신이 깨어날까? 혹시 깨어난다면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정신을 이어 나가기 위한 나의 무의식인 걸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이 질문에 해답을 구하지 못하였다. 만약 내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는 날이라면 그날은 우리가 무언가를 수호하고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일 것이다.
그 뒤 여러 호남의 의병에 대한 자료와 활약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나는 자랑스러움이 나를 감싸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느낌을 의식하고 있었다. 의식하지 않으면 잠식당할 수 있다.
그 뒤 나는 처음 보는 사업을 보며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업이라는 것을 단방에 알 수 있었다. 바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다.
이 사업은 호국 영웅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 호국보훈사업이라고 한다. 발굴 현황, 사례가 나와 있어 더욱 이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나에게서 끌어냈다. 마음속에 자랑스러움은 너무나도 가득해졌다.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솟구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자랑스러움이라는 이름의 산소는 지식과 존경심이 만들어낸 불씨를 더욱 거대한 불꽃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나의 세 번째 주제는 끝이 났다.
세 번째 주제까지 끝이 난 나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 후에 편지를 씀으로써 나의 활활 타오르는 마음을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호남 호국기념관에서의 관람은 끝이 났다.
나는 호남 호국기념관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며 나의 발전을 도모하게 해줄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번 호국 작업 도전에 참여한 나의 선택한 나 자신이 고마웠다. 나는 오늘 배우고 느낀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계속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며 호국 영웅들에게 항상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이다. 나도 나라를 위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보다 나라와 내 옆의 친구들, 동네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느낄 것이다.
“나는 이제 타오르는 불꽃이다”.
“나의 마음속에 지식, 존경심, 자랑스러움이 만들어낸 불꽃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순천여고 2학년 조○아

뭐어? 내 고향 순천에 호남 호국 기념관이 생겼다고?!

어느 날 학교 커뮤니티에 선생님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바로 '청소년 호국 워크 챌린지' 라는 문구가 써진 포스터였다. 나는 이 포스터를 보자마자 바로 흥미가 생겼다. 왜냐하면, 평소에 같은 일상만 반복하는 지루한 내 하루의 변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곧바로 탐방 장소를 확인했더니 익숙한 곳이었다. 그 이유는 내가 평소 궁금해했던 집 근처에서 공사했던 장소였다. 그곳에서 지어지는 건물이 호남 호국 기념관이라니, 더욱 흥미로워졌다.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나의 호기심의 해결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이 챌린지를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참가접수 날이 오자마자 바로 접수했다. 역시나 신청하기만 했는데 너무 뿌듯하였다. 어라라? 이게 무슨 일일까? 갑자기 내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진다. 이게 바로 열정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보다. 최근 들어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느낌 오랜만이다.

11월 19일. 내가 탐방을 한 날이다. 이날이 평일이라 학교를 끝나고 기념관을 탐방하러 가려고 했지만, 참가 확정 문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 아뿔싸! 탐방일정은 9시 30분부터 17시까지였다. 학교가 17시에 끝나기 때문에 나는 매우 곤란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이 챌린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던 중 나는 해결법을 찾았다. 바로 점심시간에 외출증을 끊고 다녀오는 것이다.

점심시간이 왔다. 나는 외출증을 끊고 기념관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집 근처에 있던 곳이라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념관을 들어갔는데 겉에서 본 것과는 달리 내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어서 놀랐다. 입구에서 열을 재고 방문기록을 작성한 다음에 나는 무작정 계단으로 올라갔다. 살펴보니 'PART.1', 'PART.2', 'PART.3'으로 나누어져 있길래 당연히 'PART.1'부터 들어갔다. 첫 번째 주제는 '6.25 전쟁을 마주하다' 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호국 영웅분이 가족에게 쓰신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았다. 가족분에게 전하는 편지였는데 결국 이 편지는 가족분들에게 닿지 못 한 체 영웅분께서 전사하셨다고 한다. 이 편지를 읽은 나는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여 더욱 마음이 아팠다. 나는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과 6개국과 의료 지원 6개국을 포함해 총 64개 나라의 유엔군도 참전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암호명 '폭풍', 북한이 기습했던 장면을 우리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시뮬레이션 한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이라고 해도 나는 너무 무서웠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 뒤이어 다른 내용에는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인천상륙작전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었다.

나는 이 여운을 잃지 않고 바로 'PART.2'로 들어갔다. 두 번째 주제는 '6.25 전쟁 속 호남'이다. 입구엔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입었던 군인, 경찰, 학도병의 제복이 전시되어 있었다. 곧바로 나는 눈에 띄는 곳을 발견했다. 그곳은 옛날 교실이 재연되어있는 곳이었고. 바로 위에 빔프로젝트로 영상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더 눈길이 갔다.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가서 영상을 보았다. 14살인 남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6.25 전쟁에 나가서 맞서 싸우는 내용이었다. 이 영상을 다 본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보다 어린 친구가 학교까지 그만두고 나라, 가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전쟁에 나섰다는 말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였다. 그곳에 태극기가 삐뚤어져 있었는데 반듯하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지막 'PART.3', '호국 정신을 기억하다' 이다. 이곳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호남 의병들의 나라를 위한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곳이다.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호국 영웅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전시되어 있던 것 중에서 뼈 조각조각을 사람의 형태로 맞춰져 있고, 머리 부분에는 전투용 헬멧이 그대로 있던 화석 같은 게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나라를 지키시다 전사하신 분들을 화석으로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앞에 써진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 라는 문구였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다. 생판 남인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생각했다.

이렇게 나는 모든 전시실의 탐방을 끝냈다. 우리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지만, 마음이 먹먹하였다. 앞으로도 절대 호남 영웅을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당시의 생생함을 잘 느낄 수 있게 영상과 세트장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우리 역사를 알아 갈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 때문에 체험전시실, 파노라마 영상관, 북카페 등등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 그래서 나중엔 가족들과 함께 또 오고 싶었다. 가족에게도 우리가 이분들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다. 다시는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다.

호남 호국기념관 탐방 소감문

-고귀한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순천왕운중학교 2학년 윤○송

우리지역에 생긴 호남 호국기념관, 학교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꼭 가보라고 추천해주셔서 탐방을 하게 되었다. 가기 전 호남 호국기념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기 위해 네이버에 쳐보았다. 호남지역 중에 최초의 국가수호 기념관이 우리지역에 생겼다니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들어가자마자 로비에 '호국 보훈의 빛' 상징조형물이 눈에 너무 잘 들어와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 호국영웅들의 그 아픈 고통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록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호국영웅들을 생각하면서 감상하였다. 1층에 기획전시실이 있는데 그 곳에는 시와 시화가 그려져 있는 작품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 이 말이 너무 나한테 박혀서 들어왔다. 이 이유가 우리가 호국영웅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목숨 받쳐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걸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던 게 호국영웅들의 그 희생이 죄송스럽게 느껴졌다. 호국영웅들의 이야기들은 2층 전시실에 파트로 나누어져 전시되어있다. 입구 쪽에 가족을 보고 싶은 소령 아버지의 편지, 그 영상을 보며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였는지 마음이 아팠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매일 보며 사는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6.25전쟁의 시작, 새벽에 북한군이 공식적인 선전포고도 없이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쳐들어왔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했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던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남침을 막기 귀한 긴급조치인 다리 폭파로 다리를 건너던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미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서울 시민들과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채 교전 중이던 국군 장병들이 한강 북쪽에 고립되었다. 아예 준비도 못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 북한에게 유엔이 그만 멈추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들과 유엔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리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어린 학생과 군인, 경찰, 학도병 등 나라를 지켜낸 호남의 영웅들 기억을 못 했던 것이 죄송하였다. 얼마나 무서웠을 까 그 용기야 말로 정말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전시실 입구와 출구에 전시되어있는 호남영웅들의 모자 입구에 걸려있는 거는 깨끗한 새 모자 이지만 출구에는 다 남아있지는 않지만 총알로 뚫어져 있는 자국과 많이 더러워진 모자가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상륙작전 등 다양한 작전으로 우리나라를 결국 지켜주신 분들이 있다. 정말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이 땅에 남은 아물 수 없는 상처' 전쟁은 아픔과 고통, 상처 밖에 남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호국 영웅들이 조국의 품으로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알아야 할 역사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의 용기를 알

지 못해서 죄송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학교에서 시험으로 보는 수학, 영어를 잘 하는 것보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친구들에게 내 친동생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다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다. 전시실이 깔끔하게 이해하기 싶게 잘 만들어져 있어 완전 빠져 감상을 하였다. 코로나여서 비록 체험은 못해 아쉽지만 만족스러운 탐방이 되어 좋았다.

순천금당고 3학년 윤○웅

기억을 다짐하며

버스가 멈추면서 동시에 소리를 내며 열린 문. 고개를 들어 앞을 보자 멀리서도 희끗희끗 보이는 건물. 정류장에서 걸어서 5분도 체 안 걸릴 것 같은 거리에 위치한 기념관. 사람이 오는 게 반가웠는지 길가에 서있는 이파리가 다 떨어진 은행나무들이 외로운 몸으로 반겨주었다. 나무들이 만들어준 노란 길을 따라 걸어가고, 걸을 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소리에 취할 때 즈음 호남호국기념관이 보였다. 건물이 크기에 차가운 분위기일 거라는 내 생각과는 달랐다. 건물 앞에 있는 넓은 잔디 밭, 조용히 들리는 악기 연주 소리, 6.25전쟁에 참전했던 여러 나라들의 국기가 호남호국기념관과 어우러져서 웅장하지만 따듯하고, 친근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기념관 안을 들어가면 보이는 군인의 형상을 한 기념관의 상징 조형물 '호국보훈의 빛'. 군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 밑에 쓰인 6.25전쟁의 기록들이 그 시대를, 이 기념관의 목적을 대표한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호남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증거, 그 정신을 찾기 위해 나는 계단을 올랐다.

까맣게만 보이는 제1전시실의 초입 부분을 들어가니 불이 켜지고 악기 소리가 들린다. 시간이 지나 노랗게 변한 종이에 빼곡히 한문과 한글이 섞여 적혀있는 편지가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중간마다 보이는 읽기 어려운 한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읽는데 문제가 가지 않았다. 옛사람의 옛 된 필체, 편지 속에서도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부모님은 편찮지 않으신 지 걱정하는 마음, 읽으면서 들리는 악기 소리가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 재생되는 영상이 끝나고 불이 꺼져도 그 자리를 지켰다. 쉽게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연주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중독적인 노래는 아니었다. 편지를 읽는 그 분위기가 나를 놓아 주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달라고,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편지 앞에 한걸음 더 다가가 읽지 않고 감상했다. 내가 그 편지를 받았다면 이런 느낌을 느꼈을까? 그 시절을 오래된 편지로 느낄 수 있었다.

편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6.25전쟁 발발할 때의 상황을 벽면에 흑백 스크린을 통해 보았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목소리, 장난치며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공습경보 소리와 함께 점점 사라진다. 스크린이 붉게 물들고 건물이 무너진다. 서울복덕방, 신흥상회 같은 가게들은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다. 탱크를 이끄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반도를 뒤덮은 '폭풍'처럼 탱크들이 지나가고 내 귀에는 아

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살아있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끄럽던 그 광장이 이제는 조용하기만 하다. 붉은 화면이 천천히 흑백 화면으로 전환된다. 서울 복덕방, 신흥상회 같은 가게들은 폐허가 된 체 영상이 끝나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다. 영상이 어떻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6.25전쟁은 북한의 침입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떠올릴 뿐이었다.

이어지는 전시물과 조형물을 보고 낙동강 전투 속 3차례의 방어선 후퇴와 북진의 시발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장사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등 여러 전투를 통해 6.25전쟁이 민족의 사활을 건 치열한 전투라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전은 1950년 12월 14일부터 함경남도 흥남부두에 집결해 배편으로 철수를 시작한, 12월 25일 중공군이 흥남항을 점령하기 전날인 24일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흥남철수작전이다.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으로만 알던 이 작전의 속을 들여다보았다. 벽면에는 피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피난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걸어서 후퇴하겠다."라며 강하게 주장한 한국군 지휘관들, 그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받아들인 미군 지휘관들, 작전 당시의 피난 인원, 배들이 수용했던 인원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지휘관들의 판단력, 행동력으로 살린 피난민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된 것을 알고 그 당시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지켜주는 작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호남의 영웅들

제2전시실 입구 부분에 만질 수 있게 전시되어 있는 군인, 경찰, 학도병의 모자 그리고 뒤에 적혀있는 학도병의 수기. 열여섯 되는 나이에 화개전투에 참전한 학도병의 열 줄 정도 되는 짧은 수기. 그 수기가 난 미웠다. 수기가 미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도병이 미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수기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학도병의 굳은 의지가, 나 자신이 미웠다. 열여섯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세상모르고 재미있게 놀 시기 아닌가. 그런 시기에 중학생이 의분이 솟아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 일반적인 행동인 것인가. 나라의 상황을 알고 전쟁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쟁에 참전하는 행동을 나였다면, 나였다면,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되묻게 되었다. 물으면 물을수록 속에서 흔들리는 내 감정이 나는 미웠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곱씹으며 다음 전시물로 향했다. 화전 북방 425고지 전투에서 60mm 박격포를 이용해 1개 중대 병력으로 중공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전공을 세운 김한준 육군 대위, 문경 지구 전투에서 역습 작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기여한 박노규 육군 준장, 강원도 인제군 서화 북방 812고지 전투에서 대공포판을 메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시키고 장렬히 산화한 여

방오 육군 중사 외에도 여러 호남의 영웅들의 사진과 업적이 나열되어 있었다. 영웅들의 사진과 업적을 함께 보니 사진 속 영웅들의 의지가 내게도 느껴지는 듯 했다.

제2전시실 중 가장 눈에 띄는 곳, 전쟁의 영향으로 손상된 외벽과 어질러진 교실이었다. 들어가 보니 학도병과 관련된 전투인 화개전투를 설명하는 곳이었다. 그 때 당시의 교실을 재현해 놓아 내가 학도병의 구성원이 된 듯 했다. 교실 뒤 쪽의 연표를 통해 학도병들은 9일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전선으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전진과 후퇴 그리고 다시 전진을 반복하며 전선에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연표와 설명을 통해 상상할 수 있었다. 전선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학도병들이 느꼈을 감정 속에 후회는 없었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묻고 싶었다. 1950년 7월 25일 내가 아는 화개 전투에 학도병들이 참전했다. 1,000여 명이 넘는 북한군과 180여 명의 학도병의 치열한 전투, 머릿수만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싸웠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후로 진주 전투, 진동리 지구 전투에 참전하면서 학도병들은 호남 일대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1950년 8월 13일 학생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부대장에 의해 학도병 부대는 해산되었다. 1달 동안 전투에 3번 참전한 부대였다. 전쟁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앞서서 깨닫고 느꼈을 것이다. 북한군의 손가락질 한 번에 학도병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 공포를 극복하고 전투에 계속 참전하는 것이 경외심이 들었다.

화개전투에 대한 설명을 본 후 의자에 앉아 나오는 영상을 보았다. 화개전투에 대해 애니메이션으로 풀어 설명한 것이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이지만 가볍게 끝나지 않는 영상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180여 명의 이름, 그 전투에 참전한 영웅 180여 명의 이름을 보았다. 오래되어 보이는 이름들, 그 이름들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다가왔고, 또 영상 속 내용이 호남호국기념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주었다. 70여 명의 전사자를 남긴 화개전투, 그 전투에 임하는 영웅들의 자세를 알기에 숙연해졌다. 호남의 어린 영웅들이 아닌 호남의 영웅들이 존경스럽다.

영상이 꺼지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입구와 똑같이 보이는 모자 3개, 뒤에 적혀있는 학도병의 편지. 제2전시실 입구와 똑같은 구성이지만 들여다보니 달랐다. 모자는 입구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총알을 막아 움푹 파인 방탄모와 전쟁으로 인해 해진 경찰, 학도병의 모자 그리고 전쟁 당시에 어머니에게 쓴 학도병의 편지. 편지의 내용에는 살기 위해 죽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함이 그로 인해 학도병이 느끼는 죄책감이 또 어머니와 만날 다음을 기약하며 편지를 쓴 뒤 바로 다음 전투에 전사한 학도병을 보고 속에서 무언가가 들끓었다. 연민, 동정 같은 감정은 아니다. 그렇다고 의분, 분노도 아니다. 바로 책임감, 자부심이다. 호남인이라는 자부심이 들었다. 6.25에서 많은 사건들이 호남에서 일어났고 또 호남인이 한 업적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이 눈에 띈다. 그 한마디가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로부터 호남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의병 김천일, 전해산, 김원국, 임병찬 등 여러 의병들의 업적이 나열되어 있다. 의병들 가운데 처음 보는 의병의 이름이 많았다. 그들이 활약한 전투, 장소를 보니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전투, 장소가 나왔다. 내가 공부한 전투, 장소가 호남의병의 발자취가 맞닿아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익숙하면서 새로웠다. 그 옆에는 호남의 의병들이 외쳤던 문구, 시들과 의병들을 기록한 문헌이 적혀있다. 쓰인 문구들이 많은 의병들이 일본의 침략이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려주었고, 일본 측 기록에서 의병장이 수괴, 거괴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일본이 생각한 호남 의병의 모습들을 알 수 있어 재미있었다.

123,000여 명의 미수습 전사자가 우리가 찾아주기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기억에 남는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했지만 찾은 아군 전사자의 수는 10,602구 그 중에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1만여 구라는 사실을 알았다. 6.25 전정 협정이 체결된 지 약 70여 년이 지났지만 신원불명의 시신이 1만여 구가 넘는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6.25전쟁에 대해 무관심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평화’가 123,000명의 영웅들의 희생으로 이루어 냈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았고,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책임감을 느끼며 전시실 밖으로 향했다.

호남 영웅의 정신을 찾기 위해 올랐던 계단이 전시실을 다 보고 내려올 때는 달랐다.
한 발자국 내려갈 때마다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달랐다.
전쟁에 임하는 영웅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달랐다.
계단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징조형물의 의미를 했다는 사실이 달랐다,
그 무릎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전과는 달랐다.
올라갔을 때와는 달랐다.

기념관을 나오며 바뀐 내 모습이 어색했다. 하지만 그래서 좋았다.
기념관을 나오며 본 그날의 하늘을, 내 모습을 기억한다.

따듯한 하늘의 색, 넓게 펼쳐진 구름, 천천히 모습을 감추는 태양이 기억한다.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희생을.
빨갛게 달아오른 내 뺨이, 차갑게 마른 내 두 손등이 잊지 못한다.
그들의 숨을, 그들의 따듯함을.

말없이 스러져 간 숱한 호국영웅들의 넋을 기리다
(호남호국워크 챌린지 소감문)

순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유○희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유치된 호남 호국 기념관이 완공되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21일 당일에 함께 갈 인원을 꾸려 무작정 방문하게 되었다. 그 친구들과는 재작년 여름과 겨울동안 역사를 테마로한 프로젝트 기행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했던지라 여러 지역의 박물관과 전시관을 다녀왔었던 좋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남아있어 우리 지역에 역사전시관이 생겼다는 것에 모두가 신기한 마음과 기대를 품고 길을 나섰다.

입장하기 전 멀리서 보이는 외관에 다소 규모가 작은 것 같다고 느꼈지만 막상 들어가 내부를 보니 중앙이 탁 트인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전혀 좁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1층에서는 넓은 로비공간에 세워진 기념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형물(호국보훈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조형물은 얇은 금속판 여러개를 엮어 측면에서는 소총을 쥔 군인의 모습을, 정면에서는 조형물 뒤가 비쳐 보일 수 있도록 세로로 이어붙인 것이었다.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마친 한명의 군인의 모습이 연상됨과 동시에 수많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을 투영할 수 있었던 의미깊은 전시물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같은 1층에 위치한 기획전시실로 갔다. 기획전시실에는 초등부, 학생부, 일반부로 나뉘어진 문학그림작품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애국심을 다시금 일깨워주는듯한 큰 울림을 담고있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태극기와 군모가 함께 그려져있던 한 고등부의 작품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

이후에 전시실들이 있는 2층으로 이동했다. 전시실들은 전쟁을 배경으로 설계한 만큼 어둡고 한적한 분위기였다. 마침 관내에 우리 일행 이외의 사람이 없어 안내데스크로 가서 해설을 요청드렸더니 한 직원분께서 흔쾌히 동행해 주셨다.

2층에는 총 3관의 전시실이 있었는데, 그중 첫 전시관에서는 6.25 전쟁의 참상과 진행양상을 볼 수 있었다. 초입부에 전쟁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민가가 재현되어있었다. 모형이라 그리 느껴지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살았던 자취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모습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기는 듯 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는 갑자기 전차의 폭격음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재생되어 깜짝 놀라기도 하였다. 상상하기도 비참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구역을 지나니 이제 6.25 전쟁의 진행양상을 입체 지형도와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가 있기에 역사를 잘 알지못하는 사람들이나 역사를 아직 배우지 않은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워보였다.

2관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과 학도병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입구 구역에 걸려있던 학도병과 군인, 경찰의 모자가 마치 6.25 전쟁의 결과는 이들 모두가 전력을 다해 투쟁한 결과라 말해주는듯 했다. 이 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던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 자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나라에 위험이 닥치면 이리 어린아이들이라 하여도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아이들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결심을 품고 전장으로 떠났을 그 당시의 아이들을 생각하니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결심을 할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어른들의 상황이 원망스러웠다. 그 순진무구했을 아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나라이니만큼 열심히 살아내고 지켜내는 것이 그에 맞는 예의이고 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관에서는 낯선 전장에서 스러져갔던 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볼 수 있었다. 6.25 전쟁은 정말이지 참혹하다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전쟁이었다. 언어와 역사가 같은 한민족끼리 총구를 겨누고 서로를 학살했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선 인구의 상당부분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 중에서는 상대측의 땅에 파묻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국내에 있는 유골의 발굴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유골을 발굴하고 유골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것은 영상으로만 접해도 결코 쉬운 작업처럼 보이지 않았다. 연구원분들과 발굴현장의 분들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전시실 바깥에는 감상을 적어 벽에 걸어둘 수 있게 메모지와 필기구가 놓여 있었다. 필자는 그날 학도병의 관에서 느꼈던 감정과 각오를 적었다.

모든 전시의 관람을 끝마치고 기념관을 나섰을때는 해가 막 기울어지고 있는 시간이었다. 나가는 길을 보니 들어올 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길가의 고랑도 괜스레 다르게 느껴졌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매일 이 평화를 넘치게 만끽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호국영웅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그런것이리라. 이제는 당연스레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상에도 감사함을 품어야 할듯하다. 이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분들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으로 단단히 굳어진 이 나라를 더욱 소중히 아낌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개개인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남 호국기념관 탐방 소감문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은

저는 학교 교실에 붙은 홍보문을 보고 청소년 호국워크 챌린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민주주의와 의병으로 역사가 깊은 호남에 호국기념관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로 참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6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호국기념관을 찾게 되었고, 입구의 안내 데스크에서 궁금한것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말씀해주신 해설사님 덕분에 걱정 없이 탐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근현대사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나 6.25전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호남에서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곳을 잘 알지 못해 항상 인터넷의 사진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6.25 전쟁사를 보곤 했는데, 제1전시실과 2전시실을 통해 여러 자료들을 직접 관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제1전시실 입구에 전시된 임춘수 소령의 편지와, 이어지는 공간에서 전쟁 상황을 재현해 군인들의 복귀 안내방송과 함께 만들어 둔 당시의 거리, 제2전시실 출구에서 유물 발굴단으로부터 대여한 6.25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3전시실에서 1학년 때 배운 의병들 중 한분이 전시되어 계신 것을 보고 친구들과 배웠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도 좋았는데요.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건 제2전시실이었습니다. 70년 전, 지금은 녹이 슨 총과 구멍난 철모를 쓰고 다녔을 당시 군인들을 생각하며 당시 전쟁의 참혹함을 짐작해 볼 수 있었으며, 호남의 각 학교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해 전사한 이들의 숫자가 적힌 판에서 제 모교와 친구들이 재학중인 학교명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역사책으로만 보았던 전쟁이 한발짝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덜컥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자신이 내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했을 수많은 군인들과 학도병들을 떠올리자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제 2 전시실 벽면에 적힌 이우근 학도병의 편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포화속으로'의 소재로도 유명한 이 편지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우근 학도병이 어머니께 보낸 것입니다. 편지 본문에서 이우근 학도병은 자신이 고작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을 죽였으며,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사람이자 같은 언어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같은 언어와 문화, 역사를 나눈 민족이 이념을 이유로 서로에게 총을 겨눴던 70년 전의 그 날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민족의 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날 가족을 잃고 팔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는 꾸준히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전선에서 우리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들을 위해서도, 수백년 전 전국 각지에서 호미와 낫을 들고 일어났던 의병들을 위해서도 평화는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더 잘 사는 것, 부자 나라가 되는 것도 참 좋

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평화와 자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도 없다”는 유명한 말처럼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순천의 학생들이 호남 호국 기념관 관람을 통해 평화와 조국 수호에 대한생각을 마음 속 어딘가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호국 기념관 탐방 소감문

순천 동산여자중학교 윤○빈

처음 [2020 나혼자 탐방! 청소년 호국워크 챌린지]라는 행사를 동생을 통해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호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고 있던 나에게 호국 기념관은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자세한 것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고, 내가 잘 몰랐던 단어들의 뜻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입구에 갔을 때 웅장한 건물에 너무 기대되는 마음을 가득 안고 들어가게 되었다. 1층이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넓었다. 큼지막한 조형물들도 너무 멋있었다. 2층은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감상한 제 1전시관은 6.25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역사교과시간에 들었을 때 현실감도 없었고 하나하나의 전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어디서 무슨 전투가 일어났고 정황이 어떠하며 왜 이런 상황인지 정말 잘 성명이 되어있어서 너무 유식했다. 특히 경상도에서 일어난 전투를 잘 알 수 있었고, 인천상륙작전의 자세한 순서와 경위도 알 수 있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또 중국군의 개입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중국군이라고 밝히지 않고 '국민들이 자의로 도운 것이다.' 라고 주장한 부분은 참 어이가 없었다. 또 피난민을 구한 배에 대한 부분에서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정말 머리에 남았다. 다른 여러 배들도 많은 피난민을 구했지만 정원이 60명인 배에 짐들을 모두 버리고 14,000명의 사람을 구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또 마지막에 시대별로 정리해 놓은 표가 확실히 정리되어 좋았다.

두 번째로 감상한 제 2전시관은 특히 내가 가장 마음에 오래 남았던 곳인데 호남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었고, 입구와 출구부분에 군인과 경찰, 학생의 모자로 표현한 부분이 여운이 오래 남았다. 입구엔 분명 깨끗한 모자들이였는데 감상을 다 하고 출구로 나와 보니 모자들이 총알에 뚫리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연출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특히 나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혈서를 써 지원하고 학도병에 지원하여 부모님도 보지 않고서 입대해 싸운 것을 보여준 영상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조금 났다. 또 마지막 부분에 있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여러 군인들과 경찰들... 특히 학도병이 최초로 참전한 화개 전투.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 어린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운 학도병들이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다.

마지막으로 감상한 제 3전시관 오래전 호남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킨 역사적 사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등,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를 호남 사람들이 피 땀 흘려 지킨 것을 증명해주었다. 또 그 희생으로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설명되어있고, 그 기관까지 설명하여 너무 좋았다. 또 해골을 연출 한 것은 섬뜩하면서도 이렇게 희생하신 호남 의병들이 우리 주변에 파묻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와닿았다. 또 출구 부분에 발견된 총탄, 총, 탄피 등 여러 유물들과 영상들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전시관을 다 감상하고 보니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이 짧은 시간에 스쳐지나갔다. 내가 이 기회에 호국 기념관에 오지 않고 지나쳤다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몰랐겠지? 호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르고 삶을 낭비하거나 내 삶에 불평하며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분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무서움에 떨기만 하며 가만히 있었다면 이 세상에 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과 혹시 나도 이런 무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호남의 청소년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거창한 것은 없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더 참여하고 내 나라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들의 뜻을 기리며 나라 성장에 기여하고 역사를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경험하고 싶지 않고 미래세대들에게 경험시키고 싶지 않기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호국영웅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전남동부보훈지청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